

동양사상의 시스템 사고를 통한 상생 리더십의 현대적 사례 연구* : 2011년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안철수와 박원순을 중심으로

Oriental Way of Systems Thinking and Win-Win Leadership: Focusing on 2011 Seoul mayor election, Ahn Cheol-soo & Park Won-soon

김헌식** 김동환***

Kim, Hun-Sik** · Kim, Dong-Hwan***

Abstract

This study focus on oriental way for Win-win leadership of modern time using systems thinking approach. We constructed concept, 'Modesty Leadership' from oriental bible- Tao Te Ching, Change Ch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This work described in the paper based on case collected from 2011 Seoul city mayor election in the Korea. There are three initial aims : to confirm what feedback loop affected approval rating, to determine how these feedback interacted and to establish the significance of cognitive mapping. The use of system thinking to model cognitive mapping of political election untraditional approach in study of oriental bible. This approach is valuable in that it can be to understand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ir effect on decision making.

Keywords: 상생, 겸양 리더십, 시스템사고, 2011서울시장선거, 안철수, 박원순, 경영전략, 의사결정

(Modesty Leadership, Win-win, systems thinking, management strategy, decision making, mayor election.)

* 본 논문은 2011년 10월,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월례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미래콘텐츠 문화전략연구소 연구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1. 서론

세계가 서양의 지배에서 동양으로 이동한다는 담론의 핵심에는 동양사상이 뿌리를 틀고 있다. 과거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고래(古來)의 사상과 가치관, 문화 등의 동도(東道)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과 기기(器機) 등의 서기(西器)를 결합시키려는 사고체계이다. 청의 양무운동(洋務運動)의 중체서용론(中體西用論)이나 일본 개화기의 화혼양재론(和魂洋才論)에 이어 동도서기론은 조선 정부의 정책기조였다.¹⁾ 이는 과거만이 아니라 중체서용론, 화혼양재론, 동도서기론 같은 논리들은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서구중심주의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도 계승되고 있다. 동양사상이나 아시아적 가치는 바로 동양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사상은 동양고전에 기인한다.

그런데 동양사상을 담은 고전들은 대부분 제왕학(帝王學)에 관련된다. 논어, 맹자, 노자, 주역 등은 세계의 이치와 인간세상을 논하지만 결국 한 사회의 최고 리더들이 의사결정과 행동²⁾을 어떻게 국정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논의한 내용을 집대성하여 압축한 것이다. 예컨대 제후, 그들은 하나의 조직, 세상을 경영해야 하는 리더들이고 리더들의 사고와 행동은 바로 오늘날 흔히 회자되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³⁾

1) 1881년 7월 전 장령(掌令) 광기락(郭基洛)은 상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양이라고 하더라도 기계 기술이나 농사가 진실로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행할 것이요, 그 사람으로 해서 그들의 좋은 법까지 물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뒤 동도서기론은 1880년대 초반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때 김윤식(金允植)·신기선(申箕善) 등이 체계화했다. 다만, 성리학의 이기론적 우위관(理氣論的優位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는 존왕양이(尊王攘夷)를 표방하는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인 화이론적 세계관(華夷論的世界觀)에 그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예컨대 주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는 데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군자가 평소에 살피는 것은 역에 드러난 질서(事理當然之次第)이고, 즐거이 음미하는 것은 卦爻辭의 의미다. 그러므로 君子는 평소에 그 상을 관찰하고 패효사를 음미하며, 행동할 때에는 변화를 관찰하고 그 점계를 음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도움이 오며 일마다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君子所居而安者 易之序也 所樂而玩者 爻之辭也 是故 君子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 繫辭上傳 二章

“성인이 천하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모이고 통하는 그것을 관찰하여 그 법과 예로 행함으로써 말씀을 매어 그 길흉(吉凶)을 판단함이니 이런 연고(緣故)로 爻라 이른다.”

聖人有以見天下之動 而觀其會通 以行其典禮 繫辭焉 以斷其吉凶 是故謂之爻. 繫辭上傳 八章

3) 야마모토 시찌헤이(山本七平)은 제왕학을 현대의 리더학이라고 표현 한 바 있다.

“옛날에는 권력이나 권한의 모두가 특정한 단일 인간에게 집중되었으므로 그 한사람만 이것을 배우면 되었지만 전제군주제가 무너진 오늘날 권력은 하나의 특정 개인으로부터 당해주권지역의 전국민으로 평등하게 분산되었다. 당해국가의 국민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어쩌면 민주주의야말로 저마다 제왕이 되는 길을 터 놓았는지 모른다.” 야마모토 시찌헤이(山本七平). 『제왕학』. 편

동양사상을 담은 고전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리더의 말과 행동이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은 여전히 많은 현대인 나아가 애독되고 있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CEO를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의가 많이 부각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양사상에서 담고 있는 사고법들은 사회과학적으로 구현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 때문에 현대화에 실패하여 왔다. 하지만 사회과학적으로 명징하게 법칙화 되지 않는다 해도 문화적 혹은 암묵지 형태로 우리일상에 축적되어 왔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한편, 단순히 서양의 모든 것을 기(器)의 수준에만 격하해 보는 것도 타당하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간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이의 근간인 시스템사고이다. 무엇보다 시스템사고는 동양사상의 사고법과 매우 연관성이 깊고 몇몇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⁴⁾ 이는 사고법만이 아니라 학습과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동양고전에도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바 있다.⁵⁾ 그러나 동양사상의 대부분이 리더십에 관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사고와 리더십을 연결시키는 측면은 부각되지 못했다.

최근 계층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상황이 불거지면서 상생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각 주체의 상생에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왔다. 이른바 상생 리더십에 대한 요구의 증대이다. 이러한 점은 동양사상에서 특히 빈번하게 주장되어 온 내용이다. 동양사상의 상생리더십은 상대론적 리더십론이다. 상대론적 리더십은 리더십이 상대적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핵심으로 삼는다. 예컨대 흔히 제후나 황제는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절대적 권력을 발휘해도 무방할 것 같지만 이에 대해 동양선현들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는 차차 다시금 논의 되겠지만 바로 시스템사고로 분석 가능한 강자가 바로 약자가 되고 강자가 약자가 되는 상대적인 메커니즘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시스템사고의 적용을 통해 2002년 대통령 선거의 동학을 분석한 김동환 등(2004)의 연구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⁶⁾

집부 옮김. 매일경제신문사. 1984. 5-10.

- 4) 주역과 도덕경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김동환. “음양론에 입각한 시스템 사고의 접근 Yin Yan Approach to Systems Thinking”.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제10권 제1호 (2009. 4) pp.97-107, 김동환. (2003). “Oriental Way of Systems Thinking”.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4(1): 55-68., 김동환. (2004). “시스템 사고의 조감도”. 『시스템 사고』. 선학사., 김도훈. 『시스템 다이내믹스』. 대영문화사. 1999 1부 참조.
- 5) 김상욱. (2008. 5). “동양의 시각에서 본 학습조직의 재해석(Reinterpretation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from the Oriental Perspectives)”.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제9권 제1호: 33-5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양사상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생 모델과 리더십의 단초가 되는 상대론적 리더십을 동양고전 속에서 다시금 재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상대론적 리더십은 주역의 원리에 바탕을 둔 ‘상생(相生)’과 ‘겸양(謙讓)’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겸양은 겸손하고 양보하여 결국 상대를 높이고 자신도 높이는 상생, 이른바 윈윈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측면은 1인자이지만 2인자형 리더십을 선을 보이고 이를 통해 2인자의 위치가 아니고 1인자의 위치를 형성하거나 고수하는 행태들을 포괄한다.⁷⁾ 뿐만 아니라 동양사상이 전반적으로 혼자만의 제왕학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화와 협력의 상생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실제 서울시장 선거사례에 적용하여 시스템사고로 구현해보고자 한다. 요컨대, 경쟁자간의 경쟁과 자원배분이 일반적으로 경쟁의 격화와 자원배분의 편향성격화로 나타나며 그것이 사회국가적인 가용자원을 소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의 단초를 시스템사고로 구성하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강자 안철수와 약자 박원순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통상적인 피드백원형이 나타내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도의 상승과 자원의 증가현상을 가지고 오고⁸⁾, 편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주체의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을 동양사상의 3대 경전인 역, 논어, 도덕경을 빌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3대 경전을 선택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분석단위들을 구성해본다.

II. 동양사상의 상생 리더십론과 시스템사고

동양사상의 근간은 역(易)에서 비롯한다. 그것을 인간의 치세에 적용하려는 가운데 유학이 나왔고 그것에 반대해 견제해 역의 원리를 자연에 가깝게 적용하려 했던 것이 노장사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에는 두 사상이 대립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다. 그것은 역의 사고에 대한 현실적 적용이나 근원적 자연원리의 추구이나 따라 달라지는 바가 있어 둘은 패러다임 동양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유학의 시조 공자는 역을

-
- 6) 김동환·김현식. “한국 사회 변화의 티핑 포인트와 시스템 사고: 약자의 피드백 루프와 티핑 포인트들의 인과성 검토, *Systems Thinking on the Change of Koean Society into Square Culture*”. 『한국 시스템 다이나믹스 연구』 제5권 제2호: 5-31., 김동환·김현식. (2005). 『촛불@광장 사회의 메커니즘: 티핑 포인트, 약자의 선순환, 트리거』. 북코리아, 김현식. (2006). 『신돈 미친하니 거리낄 것이 없네』. 창해.
- 7) 이는 2인자형 1인자 리더십으로 표명할 수 있다. 김현식. (2009). “제4장 5. 1인자도 2인자처럼 해야 살아 남는다”. 『복종하며 지배하라』. 연암사. 2011년 10월 세미나에서 2인자 리더십에 대한 논의제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겸양의 시스템사고로 수정했다.
- 8)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견개진의 필요성을 조언해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원 없이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예컨대 “하늘이 나에게 수년의 기간을 더 주어서 역경을 배우게 한다면 세상일에 큰 허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⁹⁾ 위편삼절(韋編三絶)이라는 말은 공자가 주역을 책을 묶은 가죽 끝이 세 번 끊어진데서 유래했을 만큼 공자가 역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 공자가 십익(단전 상하, 상전 상하, 문언전, 설괘전, 서괘전, 잡괘전)을 지어 보충 설명한 것이 주역이다. 역경은 동양 사상들이 모두 뻗어나간 수원지 역할을 했고 이 역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가운데 하나가 상대론적 겸양사고이다. 또한 논어나 도덕경에도 이 같은 논의들이 같이 합의 되고 있지만 관장하거나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약간 다를 뿐이다.

이러한 겸양사고에 대해 비움과 기다임의 기다림의 행정학이라는 개념으로 접근되기도 했다. 비움-기다림-만남은 자신을 비우고, 기다리고, 마침내 원하던 것을 만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천(天-우주)-지(地:자연)-인(人-인간)이라는 구도에서 역, 도덕경, 논어의 사상¹⁰⁾과 맞물린다.¹¹⁾ 비움-기다림-만남은 일중에 자신을 비우고 기다리면 뜻하는 바를 얻는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겸양이다. 시간(역경), 공간(도덕경), 인간(논어)의 삼간(三間)과 삼연(三然)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는 이를 인간관계나 정치관계에서 겸양이라는 개념으로 묶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서양에도 이러한 비슷한 맥락으로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의 국가통치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최고의 통치자들에게 제왕학의 형태로 집대성되지 는 못했던 점을 대별하여 동양경전을 그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1. 상생 사고

각자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 상생, 상극의 원리의 출발이고, 상생과 상극의 핵심은 바로 겸양이다. 역(易)에서는 하늘의 도를 우선 언급하며 궤를 통해 음과 양으로 세우고 강함과 부드러움을 통해 효(爻)를 만든다. 이를 사람의 세계에도 적용하여 사람의 도를 인(仁)과 의(義)로 분별한다.(說卦傳 第一章)¹²⁾ 하늘의 도를 정립하기 위한 것은 음과 양, 땅의 도는 유

9) 論語, 第七篇 述而, 子曰 加我數年 五十以學易 可以無大過矣,

10) 묵가와 법가는 모두 인간을 규율하는 원리들을 설파하고 있다. 한편으로 묵가는 논어와 비슷하며, 법가는 오히려 겸양의 원리보다는 마키아벨리즘에 가깝기 때문에 논외로 삼았으며 이는 통상 본 논문의 지향점과 다르므로 향후 다른 연구 토픽을 통해 시스템사고의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고 본다.

11) 김동환·윤건수 외. “기다림의 행정”. 2009년 춘계 행정학회 “그리움의 행정학” 세션(2009년 4월 25일) 발표 페이퍼 참조: 김동환. 『기다림의 행정-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특강』. 2009년 4월 27일 참조.

12) 옛적에 성인이 역(易)을 지을 때, 밝은 신(神)을 도우려고 시초(蓍草)가 생겨나고, 하늘은 셋, 땅은 둘로 하여 수(數)에 의지하고, 음과 양이 변하는 것을 관찰하여 궤를 세우고, 강유가 발휘하여 효(爻)가 생겨나게 하니, 도(道)와 덕(德)에 화순(和順)하여 의(義)를 다스리게 하며, 이치를 궁구하고 성(性)을

와 강, 사람의 도에 인과 의가 있으며 의가 양(陽)과 강(剛)에 해당(說卦傳 二障)¹³⁾하며 인(仁)이 음(陰)과 유(柔)에 해당한다. 변화는 이러한 변수들이 상호 상대적 위치를 통해 일어난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역(易)은 사물의 본성을 기술하고 그 본성에 따라서 서로에게 상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물과 바람, 우레와 바람, 산과 못 등의 성질을 들면서 만물의 형성 법칙을 논한다.¹⁴⁾이러한 내용은 오행(五行)의 구성으로 이어진다.¹⁵⁾ 오행은 나무, 불, 흙, 쇠, 물이라는 구체적인 물질이 어떻게 교류하고 영향을 주는지 살핀다. 상생(相生)과 상극(相克)은 목·화·토·금·수 다섯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 상생은 목→화→토→금→수→목의 순서를 갖는다. 앞의 것이 뒤의 것을 낳고 도와주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를 나무는 불을 붙게 하고, 불은 재를 남기고 이는 흙이 된다. 흙은 금속을 생성시키고, 금은 다시 물을 활성화 시키며 물은 나무를 번성하게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물질의 관계는 결국 모두 이롭게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나무는 불에 들어가야 하고 불은 활활 나무를 태워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며 흙은 단단하게 뭉쳐 들어가야 쇠가 되며 단단한 쇠는 물에 녹아야 살아있는 물이 되며 물은 다시 나무로 빨리 들어가야 한다. 자연의 질서체계는 이렇게 상생의 구도로 되어 있다. 아울러 그 이면에는 상극의 메커니즘도 존재하는데 이는 대개 부정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부

다함으로써 천명(天命)에 이르게 하니라.-說卦傳 第一章 昔者聖人之作易也 幽贊於神明而生蓍 參天兩地 而倚數 觀變於陰陽而立卦 發揮於剛柔而生爻. 和順於道德而理於義하며 窮理盡性 以至於命.

- 13) 옛날의 성인들이 역(易)을 만드는 까닭은 장차 성명지리(性命之理)에 순응(順應)하기 위함이니 이로써 하늘의 도(道)를 세우는 것이로되 음(陰)과 양(陽)인 것이며, 땅의 도를 세우는 것이로되 유(柔)와 강(剛)인 것이고, 사람의 도(道)를 세우는 것이로되 인(仁)과 (義)인 것이다. 삼재(三才)가 겹쳐서 두 번하기 때문에 바뀌어가면서 육잡(六筮)으로 궤를 이루는 것이라 하고,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나뉘면서 강(剛)과 유(柔)가 차례로 쓰이니 바뀌어서 여섯 자리로 빛남을 이루는 것이다.

說卦傳 二障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 道曰 陰與陽 立地之道曰 柔與剛 立人之道曰 仁與義 兼三才而兩之 故 易 六筮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 易 六位而成章

- 14) 신(神)은 만물(萬物)을 묘(妙)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우뢰보다 더 빠른 것이 없으며, 만물을 흔드는 것으로 바람보다 더 빠른 것이 없고, 만물을 말리는 것으로 불처럼 말리는 것이 없고, 만물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못보다 더 기쁜 것이 없고, 만물을 적시는 것으로 물처럼 적시는 것이 없으며, 만물을 마치게 하고 시작하게 하는 것으로 간(艮)만큼 성(盛)한 것이 없다고 하니, 이러한 이유로 물과 불이 서로 따르게 하며, 우뢰와 바람이 서로 거스르지 아니하고, 산과 못의 기운이 통한 연후에야 능히 변화하여 만물을 이루어서 마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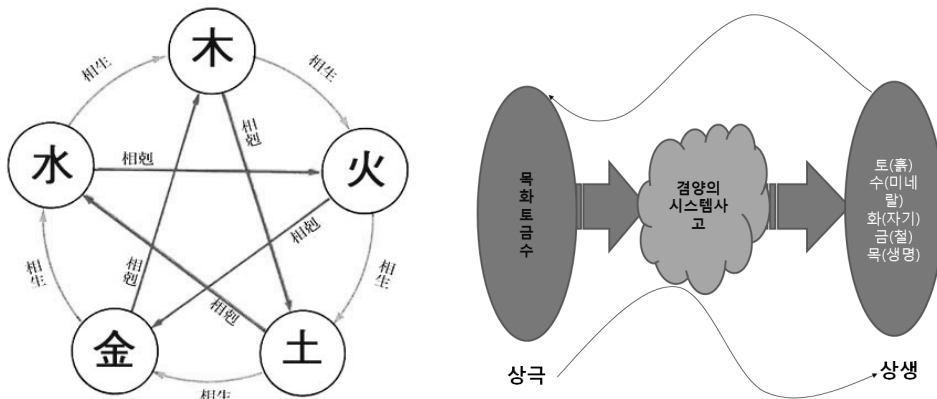
說卦傳 第六章 神也者 妙萬物而爲言者也 動萬物者-莫疾乎雷 撓萬物者-莫疾乎風하고 燥萬物者-莫耗乎火 說萬物者-莫說乎澤 潤萬物者-莫潤乎水 終萬物始萬物者 莫盛乎艮 故 水火-相逮 雷風 不相悖 山澤 通氣然後 能變化 既成萬物也.

- 15) 『설문해자』에 오(五)는 ‘두는 하늘과 땅 사이의 음양이 항상 교류하는 모양이라고 했고, ‘×는 음양이 서로 사통팔달하는 형상’이라고 했다.

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의 메커니즘이 된다. 상생의 관계는 양의 피드백 루프 라면 상극은 음의 피드백 루프를 내포한다. 나무는 흙을 통제해야 하고 흙은 물을 제어하며, 물은 다시 화기를 통제하며, 불은 쇠를 통제하고 쇠는 나무를 제어한다. 금속성 물질에 나무는 마음대로 변창할 수 없다. 그 성질상 나무를 베는 것은 쇠도끼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이로써 한쪽이 지나치게 팽창하기 보다는 적절한 균형점을 이루도록 만든다. 최종적으로 나무를 쇠가 통제함으로써 나무의 극상(極上)적 팽창을 제어하여 시스템을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흙은 나무에 제어를 받아야 하며, 물은 흙의 통제에 불은 물의 제어에 금은 불에 녹아들어야 하고 나무도 쇠에 제어되어야 한다. 당하는 것은 결국 적절한 번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면에서 오행은 하나의 존재가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전체 시스템이 순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은 인간의 도에서 겸양(謙讓)의 사고를 내세우게 한다.

2. 겸양사고와 리더십

겸양은 자기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다. 주역에서는 괘효사(卦爻辭)에서 겸(謙)을 “겸(謙)은 성장하고 번영한다.(謙亨)”라고 풀었다. 또한 이것이 군자유종(君子有終) 즉 군자가 중국적으로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늘도 그 기(氣)가 내려 만물을 낳게 함으로써만 그 빛을 참되게 발휘한다.”(天道下濟而光明)라고 했는데 이또한 하늘의 위대한 이치가 하늘에만 존재하면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으며 애써 지상으로 내려와서 기를 주어야 생성된다는 것을 말한다. 세상의 법칙은 넘치는 자에게 화를 주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이것을 ‘귀신의 도’라고 표현했다.(鬼神害盈而福謙) 이러한 점은 단순히 신적인



[그림 1] 오행 상극의 역설

영령의 도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 사고의 피드백 루프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미 내포되어 있는데 “교만을 미워하고 겸허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도이다.”라고 표현한데서 알 수 있다.(人道惡盈而好謙) 따라서 “겸허한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빛을 내고 비천한 몸이라고 경멸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의 유종의 미를 거둔다.”(謙尊而光 卑而不可踰, 君子之終也.) 라고 한다. 즉 겸한 사람이 귀한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은 경멸하지 않는다. 여기에 경멸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얻는다는 말이 된다. 사람의 지지를 얻어야 존립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대리자(代理者)임을 말한다.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 원칙에도 매우 부합한다는 말이다. 과거에는 당장에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겸손하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지를 받더라도 겸손하지 않아 지지이반을 낳는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지지이반은 실각을 의미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을 의미한다. 공자는 이러한 역경의 논지를 확장 시킨다. 『주역(周易)』의 ‘계사전(繫辭上傳)’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자신이 노고가 있으면서 겸손한 것이니 군자의 마침이 있어 길하다하니 공자가 말하길 노고가 있고서도 자랑하지 않으며, 공이 있어도 덕이라 하지 않으니 두터움에 이른다. 그 공을 사람들에게는 낮추어서 말한다. 덕은 풍성할 때 하는 말이고, 예는 공손할 때 하는 말이니 겸손하다는 것은 공손함을 이루게 하여 그 자리를 보존하게 하는 것이다.¹⁶⁾

역(易)에서 상대에게 도움이 되려면 자신의 희생 즉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어느 정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공자는 자신의 노고 그리고 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으면 신뢰가 두터워 진다고 했다. 말한다고 해도 낮추어 말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자리를 리더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논어(論語)』에서 자공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달하게 해 준다. 가까운 것을 취해 남에게 비유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의 올바른 방향이다.¹⁷⁾

16) 勞謙 君子有終 吉 子曰 勞而不伐 有功而不德 厚之至也 語以其功下人者也 德言盛 禮言恭 謙也者 致恭 以存其位者也. 繫辭上傳 八障.

17) 論語 第六 雍也篇, 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 其猶病諸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공자가 말하는 인자(仁者), 즉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려고 할 때 남을 세워주면 자신이 설수 있다고 말한다. 거꾸로 남을 세워주지 않으면 자신이 설수 없음을 말해준다. 공자는 또한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키워 주고 남의 나쁜 점을 키워 주지 아니하나 소인은 이와 반대이다.”¹⁸⁾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자신이 일정한 자리를 욕망하려면 상대방을 높여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자는 사심과 욕심에서 벗어나야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⁹⁾

또한 역(易)의 가르침에서 파생한 노자는 공자보다 더욱 주역의 핵심적인 논리를 언급한다. “하늘의 도는 마치 활대를 다루는 것과 같다.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높이고, 여유가 있는 것은 이를 덜고, 부족한 것은 이를 채운다.”라고 한 대목에서 알 수 있다.²⁰⁾

또한 그는 “최상의 덕은 물과 같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물의 움직임이 “도에 가깝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늘의 도이자 땅의 도이며 인간의 도를 말한다. 그는 “물은 거처하는 곳으로는 땅을 좋다고 하고, 마음은 깊은 것을 좋다.”고 했는데²¹⁾ 이는 항상 낮은 자세에 임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노자가 좀 더 인간 세상에 적용시켜 “성인은 그 몸을 뒤로 하지만 도리어 몸이 앞서지고, 그 몸을 버리지만 도리어 몸을 영존케 한다.”라고 했다. 이를 풀어보면 자신을 1인자로 내세우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2인자가 되지만 결국 그것이 1인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고 그 몸을 희생하지만 결국 그것이 희생이 아니고 몸을 유지보존하게 하는 척도가 됨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²²⁾ 이러한 맥락은 결국 위치와 자리에 대한 집착의 욕심을 하는 행위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얻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는 『도덕경』에 여러 곳에서 더 강조된다고 볼 때, 겸양의 시스

18) 論語 顏淵篇 子曰 君子成人之美 不成人之惡 小人反是.

19) 공자는 네 가지를 절대 안했다. 사의(私意)를 가지는 일이 없고, 꼭 하겠다고 장담하시는 일이 없고, 고집하는 일이 없고, 나만을 생각하시는 일이 없었다. 論語 子罕篇 子絕四 毋意毋必毋固毋我.

공자가, “나는 강한 자를 아직도 보지 못하였다.”고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정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했다. 이에 공자가, “신정은 욕심이 있으나 어찌 강하다 하겠는가.”고 했다.

論語 第五 公冶長篇, 子曰吾未見剛者 或對曰申根子曰根也慾 焉得剛

20) 道德經 七十七障. 天之道, 其猶張弓與, 高者抑之, 下者舉之,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 天之道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孰能有餘以奉天下, 唯有道者, 是以聖人爲而不恃, 功成而不處, 其不欲見賢.

21) 道德經 八障,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居善地, 心善淵, 與善仁, 言善信, 正善治, 事善能, 動善時, 夫唯不爭, 故無尤.

22) 道德經 七障, 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以其不自生故能長生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外其身而身存非以其無私邪故能成其私.

템사고가 노자의 사상에 기본임을 알 수 있다. 노자는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장성시키되 주재하지 않으니, 이것을 현 덕이라 한다.”²³⁾라고 했다. 공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앞에 자신의 공과 노고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 나타내지 않는지라 그러므로 뚜렷해지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는지라 그러므로 선이 밝혀지고, 스스로의 공을 자랑하지 않는지라 그러므로 오래 존경을 받는다.”²⁴⁾라고 했다. 또한 이것이 성인이 천하의 법식에 되는 이유라고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존경’이라는 단어다. 존경은 인과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의 긍정적 평가와 이에 따른 지지를 말한다. “구부러지면 온전하고, 굽으면 곧 펴고, 오목하면 곧 차고, 헤지면 곧 새로워지며, 적으면 곧 얻고, 많으면 곧 미혹된다.”라는 말도 당장에 비어 내면 그것은 곧 차게 됨을 말한다.

당장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 것을 남에게 덜어주면 그 비어있는 곳은 채워지고 완전해진다.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완전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데 덜어내면 완전성을 달성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를 채우려 하면 이를 그만두는 것보다 못하며, 갈아서 이를 날카롭게 하면 오래 보전하지 못한다.”²⁵⁾고 했다. 오래 보전하지 못하는 것도 다른 이들의 지지가 지속되지 못함을 이룬 것이다. 단순히 소학(小學)에서 평생 동안 남에게 길을 양보(讓步)하면서 살아도 그 손해가 백보밖에 안 된다(終身讓路不枉百步)며 겸양의 미덕을 강조하는 것은 인과성에 대한 검토가 간과된 것이다.

노자는 또한 “발돋움하는 자는 서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자는 가지 못하고, 스스로 나타내는 자는 뚜렷해지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 공을 자랑하는 자는 공이 무너지고, 자만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했다.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나가 항상 이를 미워하기” 때문이다.²⁶⁾ 단순히 지지를 철회하거나 떠나는 것이 미움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비판이나 공격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군주나 제후같이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노자는 지적한다.

23) 道德經 十障 生之畜之，生而不有，爲而不恃，長而不宰，是謂玄德.

24) 道德經 二十二障. 曲則全，枉則直，窪則盈，幣則新，少則得，多則惑，是以聖人抱一爲天下式，不自見，故明，不自是，故彰，不自伐，故有功，不自矜，故長，夫唯不爭，故天下莫能與之爭，古之所謂曲則全者，豈虛言哉，誠全而歸之.

25) 道德經 九障. 持而盈之，不如其已，揣而銳之，不可長保，金玉滿堂，莫之能守，富貴而驕，自遺其咎，功遂身退，天之道.

26) 道德經 二十四障. 企者不立，跨者不行，自見者不明，自是者不彰，自伐者無功，自矜者不長，其在道也，曰餘食餽行，物或惡之，故有道者不處.

“천하를 취하려 하려는 자는 결국 실패한다. 천하는 신기이라, 인력으로 하려다가는 실패하고, 손으로 잡으려 하다가는 놓친다... 그러므로 성인은 과도한 것을 버리고, 과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린다.”²⁷⁾

요컨대, 자신의 욕심 즉 세상의 1인자가 되려는 권력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시도하려면 실패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인력이란 도(道),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부정하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자신의 능력이나 공이 있음에도 그것을 내세워 1인자의 지위에 올라가려면 필연적으로 신뢰가 낮아지고 이것이 지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능력과 공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며 자신을 희생하면 신뢰가 높아지고 이것이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는 세 개의 주체단위가 존재한다. 자(自)와 타(他)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민(民)이다. 자와 타는 일정한 경쟁관계에 있는 이들이다. 하지만 동양사상에서는 이를 무한한 혹은 절대적인 경쟁관계에 놓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자와 타가 경쟁관계로 있게 되면 결국 어느 누구도 민이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전반적으로 이들 경쟁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 현상을 낳는 계기가 된다.

그러한 경쟁이 결국에는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두 사람 사이에서 우위에 있는 자가 결국에는 지위에 오르는 결과가 반복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해지고 결국에는 대중민주주의 극간을 흔드는 투표율 저하로 이어지고, 선거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연관되어 있는 이들만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경쟁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겸양의 2인자 리더십을 통해 지위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민(民)의 마음을 얻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은 백성에 대한 태도이다. 노자는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해서 지적한다.

강과 바다가 백곡의 왕인 이유는 그것이 진실로 자신을 낮추어 사양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충분히 백곡의 왕이 될 만하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위에 서려면 반드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의 앞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뒤에 선다. 그러기에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무겁다고 하지 않으며,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방해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천

27) 道德經 二十九章. 將欲取天下而爲之, 吾見其不得已, 天下神器, 不可爲也, 爲者敗之, 執者失之, 故物, 或行或隨, 或歔或吹, 或強或羸, 或挫或-, 是以聖人去甚, 去奢, 去泰.

하가 그를 추대하기를 즐거워하며 싫어하지 않는다. 누구하고도 싸우려 하지 않으므로 천하에 이와 능히 싸울 자가 없다.²⁸⁾

이러한 점은 상대와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가에만 집중하는 데에서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백성에 대한 낮춤과 덜어줌의 태도가 중요하다. 덜어 주어 높은 위치에 가도 그것에서 떨어져서 오히려 끊임없이 자신이 갖게 된 여유나 높음을 낮은 곳에 떨어지고 보충하려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항상 얻게 되는 것을 덜어주면 다시금 더 확장하여 채워진다는 메커니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 상생 모델의 트리거 리더

역(易)의 오행에서는 다른 존재에게 생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자신도 생하게 만드는 것임을 강조한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점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지에 비추어 적용하자면 그 양보와 희생을 누가 시작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른바 ‘트리거(Trigger)’의 문제가 불거진다.

노자는 “하늘의 도는 여유가 있는 것을 덜어내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규범은 그렇지 않아 부족한데서 덜어내어 여유가 있는 것에게 바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세상에서는 여유가 있는 이들이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서 덜어낸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칫 암울하다. 오직 강자가 약자의 것을 모두가 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자는 더욱 약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결국 약자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강자들은 더욱 적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강자는 계속 자신보다 약자인 사람들의 것을 계속 덜어내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계속 끝 가는 데를 모를 정도로 강자가 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약자들은 이러한 심리들에서 자신들의 것을 덜어가는 강자가 아니라 즉 욕심이 없고, 자신을 헌신할 사람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가 진실로 여유가 있어서 천하에 봉사할 것인가. 오직 도를 얻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큰 공을 이루고도 내세우지 않으며, 그 현명함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²⁹⁾

28) 道德經 六十六. 江海所以能爲百谷王者, 以其善下之, 故能爲百谷王, 是以欲上民, 必以言下之, 欲先民, 必以身後之, 是以聖人處上而民不重, 處前而民不害, 是以天下樂推而不厭, 以其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이 장에서 노자는 여유가 있는 이들은 모두 없는 이들의 것을 덜어가는 현실에서 누가 자신이 가진 것을 덜어서 이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바로 도를 얻은 사람이다. 여기에서 도는 앞선 언급에서 이미 밝혔듯이 시스템 사고의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있는 이들이다. 과정에서 자신의 노고나, 결과에서 세운 공적, 자신의 뛰어난을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모두 돌린다. 결국 자신의 것을 덜어서 남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덜어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족한 사람에게 덜어주면 자신은 비게 되는데, 그 비는 공간에 다시금 더 많이 채워지는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덜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자, 부유층이 먼저 자신을 덜어 부족한 이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드러난다.

대국은 하류이며 천하만물이 만나는 곳이니, 천하의 빈(牝)이다. 빈은 항상 고요한 것으로써 무에 이기고, 고요한 것으로써 겸하한다. 그러므로 대국이 소국에 겸하하면 곧 소국을 취하고, 소국이 대국에 겸하하면 곧 대국을 취한다. 그러므로 혹은 겸하여 취하기도 하고, 혹은 아래에 처하므로 취하기도 한다. 대국은 백성을 겸양하려는 것이고, 소국은 큰 데 들어가 남을 섬기려는 것이니, 대저 양자가 각각 그 원하는 바를 얻으려 하면, 대국이 마땅히 겸하해야 한다.³⁰⁾

큰 나라를 큰 강에 비유한다면, 대국은 하류이지 상류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큰 강이 여러 지류가 합하는 공간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때문이다. 대국은 여러 소국이 합하여 이룬다. 큰 강의 하류는 온갖 지류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생명이 탄생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하류는 높은 공간이 아니다. 낮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꾸로 많은 지류들이 합해져야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하류가 높다면 지류들이 그곳으로 모일 수가 없으며 생명의 공간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큰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소국이 모여 두는 공간이면, 비어야 하고 조용하고 낮추어야 한다. 노자는 그러한 공간성을 빈(牝)이라고 표현했다. 빈은 암컷 빈이며, 골짜기, 계곡(溪谷)을 의미한다. 예컨대, 빈우(牝牛)는 소의 암컷이고 종빈양(種牝)

29) 道德經 七十七障. 天之道，其猶張弓與，高者抑之，下者舉之，有餘者損之，不足者補之，天之道損有餘而補不足，人之道則不然，損不足以奉有餘，孰能有餘以奉天下，唯有道者，是以聖人爲而不恃，功成而不處，其不欲見賢。

30) 道德經 六十一障. 大國者下流，天下之交，天下之牝，牝常以靜勝牡，以靜爲下，故大國以下小國，則取小國，小國以下大國，則取大國，故或下以取，或下而取，大國不過欲兼畜人，小國不過欲入事人，夫兩者各得其所欲，大者宜爲下。

羊)은 씨암양 즉 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암양을 말한다. 따라서 낮은 곳, 모이는 곳에서는 생명이 탄생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점은 높고 고고한 곳에는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한다. 이러한 점은 리더의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다. 혼자 1인자의 위치를 내세우면 다른 이들을 합하여 낼 수 없기 때문에 곧 생산이 없는 불모(不毛)자가 된다. 이는 리더가 생산하는 존재하는 역설적 역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천하만물이 흘러드는 대국이 되어야 그 나라가 강성해지듯이 큰 리더는 다양한 이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낮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낮춘다는 것은 덜어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노자는 소국이 대국에게 낮추면 대국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는 얼핏 이해가 안 되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은 종속이거나 노예의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공(租貢)체제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조공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바치는 물산을 말한다. 통상 동양에서 제후국은 황제국에게 조공을 보내는데 이는 얼핏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종속의 관계로 평가되기 쉽다. 그러나 이 작은 소국에서 보낸 조공에 열배 이상의 조공을 다시 되돌려 보내주어야 한다. 그것은 대국의 품모에 맞기 때문이다. 조선의 경우에도 명나라에 많은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너무 많은 조공을 보내게 되면서 자주 보내지 말라고 이른다. 이렇게 요청한 것은 조공에 대해 상응하는 물자가 너무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이다.³¹⁾ 결국 소국은 대국에게 일정한 저자세를 취하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실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³²⁾ 중용(中庸)에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아는 이들은 편안하게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험한 일만 당하게 된다고 말한다.³³⁾

다만 이런 상생 모델과 리더십의 발휘에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자와 타의 사이나 지지자와 피지지자가 합의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이다. 만약 그것이 합일되지 않는

31) 다만, 이렇게 조선에 들어온 황제국의 하사품들이 온 백성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조공품은 대부분 백성들이 만들었지만 그에 상응해 돌아오는 물건들은 일부 계층과 세력들이 독점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조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백성들에게 강하게 심어줄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에게 조공은 그야말로 수탈이었고, 그로 인해 비난은 지배층과 황제국에도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돌아야 할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공제도에 대한 상대적 시각과 연구가 시스템사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2) 중용(中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윗자리에 있어서는 아랫사람을 깔아뭉개지 말며, 아랫자리에 있어서는 윗사람을 잡아당기지 말며, 자신을 바로 하여 남에게서 구하지 않는다면 곧 원망이 없을 것이리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아래로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中庸 十四障 在上位 不陵下 在下位 不援上 正己而不求於人 則無怨 上不怨天 下不尤人.

33) 그러므로 군자는 평탄한데 거하면서 명을 기다리며, 소인은 험난한 일을 행하면서 요행을 구한다.(故君子居易以俟命 小人行險以徼幸.) 여기에서 명(命)은 자명한 법칙 예를 들면 권력이나 시장, 자본의 객관적인 운행원리를 말한다. 이 논문의 요지대로라면 시스템사고 이다.

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는 가치가 없어진다.

주역에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면 그 예리함으로 무쇠라도 끊을 수 있다. 同心을 말로 표현하자면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³⁴⁾고 했으며, 공자는 논어에서 “길이 같지 않으면 서로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³⁵⁾라고 했다.

일련의 행동들은 인위적인 전략이 아니라 진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때 그것은 옳히고 만다. 이점은 『논어』나 『손자병법』이 역설적으로 잘 지적하고 있다.

4. 분석틀

앞에서 논의한 사고들을 몇 가지 분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① 위치 포지션-강자, 부유한 자와 약자, 빈자가 성립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저량이 많은 사람을 뜻한다. 예컨대 권력자, 금권자이거나 선거에서는 지지도가 대표적이다.

② 대리자와 피대리자-이 단위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지를 보내는 단위체가 필요하다. 군주에서도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하면 왕권은 붕괴되고 새로운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왕권과 새로운 정치 세력은 끊임없이 민심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이다.

③ 겸양 행위-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몫을 덜어주는 이른바 양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로써 일종의 자신에게는 손해 보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대신 이것이 판단자(피대리자)에게 인지되어야 한다.

④ 행위의 트리거-양보와 헌신의 행위를 누가 하는가의 문제이다. 다른 상생 모델은 대개 양자의 행위의 동시성을 강조한다. 동양의 고전들은 제왕학이다. 결국 강자가 먼저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그러한 지위에서 일정한 경제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행태를 우선한다.

⑤ 성격과 평가-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어떠한 의도와 속성으로 평가되는가이다. 예컨대, 그 순수성과 무욕성을 단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앞선 사고들에서는 주로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초탈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할수록 판단자(피대리자)의 지지는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점은 비움과 기다림에 매우 부합하는 것이며 이러한 때 만남은 단순히 혼자만의 실존적 만남이 아니라 관계론적 혹은 국가론적 만남이 될 수 있다.

⑥ 상생을 위한 단일화의 조건-상생을 위한 두 사람의 조건 예컨대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를 하려면 두 사람의 지향점과 목표가 같아야 한다. 이는 신뢰를 동반하게 된다. 지향점과 목표가 같은 것은 개인적 신뢰와 사회적 정치적 신뢰를 포괄하게 된다. 만약 다른 상황

34) 繫辭上傳 八障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35) 論語 第十五 衛靈公篇 子曰 道不同不相爲謀

이거나 그렇게 인식되는 상황이라면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Ⅲ. 사례 분석: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안철수를 중심으로

1. 사례의 개요와 과정

1)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성립 과정

2010년 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후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 시장은 전면무상급식 안에 반대하고 단계적 무상급식 안을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4년까지 소득 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전면실시를 주장했고, 서울시와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12월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응해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³⁶⁾를 제안했다. 이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니라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선택하는 투표였다. 즉 단계적 실시안과 전면실시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초·중·고교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 다른 하나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이었다. 서울시의 입장을 지지하는 단체 ‘복지포폴리즘지방국민운동본부가 유권자 총수의 5%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가 성립되어 9월 24일이 투표일로 결정되었다. 총 유권자 838만7281명 중 279만5761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했다. 이는 전체 투표율의 33.3%에 해당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9월 2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결과와 시장 직을 연계시키겠다는 발표를 한다. 오세훈 시장은 “24일 치러지는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시장 직을 걸고 책

36)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다. 현대 간접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발의, 주민(국민)소환 등과 함께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 등이 지방의회의 의결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춰 청구 또는 발의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주민투표법 시행 이후 주민투표는 모두 4회 실시됐다. 2005년 7월 행정안전부 장관 요구에 따라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가 치러져 36.7%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시·군을 폐지하는 단일 광역자치안이 57%의 지지를 얻어 채택됐다. 또 같은해 9월에는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는 주민투표가 실시됐으나, 개표 결과 청원군에서 절반이 넘는 반대표가 나와 통합이 무산됐다. 11월 경북 경주시·포항시·영덕군과 전북 군산시 등 4개 자치구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됐고, 이중 89.5%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했다.

임지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책투표에 시장의 거취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 시장의 거취 표명과 상관없이 한나라당은 서울시 당을 중심으로 주민투표 승리를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24일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투표가 종료된 8시의 잠정투표율은 25.7%였다. 투표 참여율 달성에 실패한 오세훈 시장은 9월 2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사퇴를 선언했다. 사퇴의 변으로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했다. 이로써 서울 시장 보궐선거는 10월 26일로 확정됐다. ‘미니 대선’으로 여겨졌다.³⁷⁾

2) 해당 행위자들의 행태와 분석틀의 적용

10월 26일로 보궐 선거일이 결정된 상황에서 각 당의 예비후보들이 나서는 가운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출마를 선언한 것은 2011년 9월 2일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열린 <청춘콘서트>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9월 5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안철수 원장은 당시 50%대의 높은 지지를 보였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적게는 2-3%, 많게는 5%의 지지도를 보였다.

안철수 원장은 9월 6일 박원순 상임이사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6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에서 안철수 서울대융합대학원장을 만났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만나 서울시장 단일화 담판은 20분 만에 끝났다. 박원순 상임이사가 안철수 원장에게 왜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지, 서울시장이 되면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를 약 10여 분간 발제를 통해 설명했다. 안철수 원장은 단일화에 합의한 뒤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철수 원장은 “박 변호사야말로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잘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³⁸⁾

두 사람의 단일화는 안 원장이 조건 없이 박 상임이사의 출마를 지지하는 형식이었다. 지지율 50%의 후보가 5%의 후보에게 양보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안철수 원장의 양보로 지지율이 올라간 박원순 후보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앞질렀다. 다만, 10월에 들어서면서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에 바짝 추격을 당하고 중순 이후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자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이틀 전인 10월 24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 전달했다. 이 편지로 지지율은 다시 올라가고, 10월 26일, 박원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최종적으로 누르며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37) 『헤럴드 생생뉴스』. (2011). “오세훈 사퇴, 서울시장 보궐선거 10월26일”. 2011년 8월 26일자.

38) 『한겨레』. (2011). “[사설] 박원순-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의미와 과제”. 9월 6일자: 31면 3단.

1)여기에서 강자는 안철수였고, 약자는 박원순 후보이었다. 안철수의 여론 조사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2)박원순과 안철수는 서울시민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서울시민이었다. 3) 두 사람 사이에 겸양 행위가 있었다. 자신을 출마하지 않고 다른 후보에게 양보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높게 평가했다. 디오피니언 부소장은 “안철수·박원순 단일화 이후 박 상임이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안 원장이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³⁹⁾4)그러한 평가적 양보의 행위자는 안철수 이었고, 이는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한 것이었다.⁴⁰⁾ 강자인 안철수가 약자에게 상생 모델의 트리거 역할을 했다.⁵⁾이러한 겸양행위의 목적과 성격이 무엇인가 초점이 맞추어졌다. 순수성과 무욕성이 평가되었다. 안철수 원장은 반이명박, 야권 후보 단일화 구도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계가 아니라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⁴¹⁾조건 없는 양보였다. 6)두사람 간의 동일한 공감대와 목적의 형성이었다. 2011년 9월 7일 박원순 후보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 교수와 저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서로 존경하는 관계였다”,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⁴²⁾ 또한 단일화 때 안철수 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제가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박 변호사님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⁴³⁾

39) 『경향신문』. (2011). “박원순 ‘안철수 지지’ 업고 나경원과 오차내 접전”. 9월 8일자: 5면.

40) 『오마이뉴스』. (2011).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원순-안철수’ 단일화 전날인 5일 인터뷰에서 “(안 원장이) 출마하지 않고 박원순을 지지하고 물러나면 두 배로 승리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안 원장이 물러나는 것은 (박 전 대표처럼) 패배해서가 아니라 지지율 1위를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 풍토에서 1위를 달리는 지지율을 가지고 물러나는 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쿨한 ‘안철수 돌풍’, 박근혜 대세론 뒤흔든다. 9월 6일자.

41) 『매일경제』. (2011). “‘박원순 각본’ 있나…백두대간 중주 중에도 이메일로 양보 요구”. 9월 6일자: A5면 2단.

42) 정치적 측면에서 공감과 동의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분석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 구도는 크게 한나라당과 범야권이 대결하는 구도다. 여야 대결, 이념적 성향으로 보수 대 진보·개혁 세력의 경쟁 구도다.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위해 야권 단일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박 상임이사도 이에 적극 공감했다. 이에 공감하고 동의한 안 원장의 불출마 선언을 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1 대 1 대결 구도는 정권 심판론과 오세훈 시정 심판론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 있다.”, 『경향신문』. (2011). “‘안풍’ 올라탄 박원순… 단일화 시너지 얼마나”. 9월 6일자: 4면.

43) 『오마이뉴스』. (2011). “박원순-안철수 단일화 담판 20분, 무슨 얘기 오셨나”. 9월 6일자.

결국 이는 서로에 대한 공감과 목표의 일치 조율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는 과감하게 양보했고, 그 상대는 물론 자신의 지지도도 높아졌다.

다음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어떠한 행위로 판단 자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분석한다.

3)지지도 추이

(1) 단일화 양보 이전

한국갤럽의 9월 3일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 지지율은 39.5%, 2위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13.0%)의 3배였다. 박 상임이사 지지율은 3.0%였다. 9월 4일,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안 원장이 37.4%로 공동 2위인 나 최고위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각각 14.2%)를 앞섰다. 박 상임이사는 2.1%였다. 9월 2일 국민일보 여론조사 3자 대결에서 무소속 안철수 원장 55.4%,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24.5%, 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변호사 9.1%였다. 한국갤럽-중앙일보, GH코리아-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 각각 3.0%와 5.0%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안 원장의 지지도는 39.5%와 36.7%로 나경원(13.0%, 17.3%), 한명숙(10.9%, 12.8%)을 월등하게 제쳤다.⁴⁴⁾

관심사는 최대 50%에 이르는 안 원장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5% 정도인 박 상임이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지였다.⁴⁵⁾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국민이 안 원장과 박 상임이사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다르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 합쳐진다면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성향이 달라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지층의 차이에 따른 분산 효과가 예견되었다. GH코리아의 9월 3일 여론 조사에서 안 원장은 한나라당 지지층의 40.2%, 민주당 지지층의 62.2%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안 원장 지지자 중 2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성향 유권자가 이탈하며 ‘거품이 빠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⁴⁶⁾

여론조사전문기관 월드리서치는 “내일 당장 조사하더라도 단순지지도(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가 10%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박 변호사가 누구이며, 안 원장이 박 변호사를 왜 지지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박 변호사는 안 원장 지지자의 30% 이상을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⁴⁷⁾ 높게 평가한 경우도 있었다.

44) 『헤럴드경제』. (2011). “지지율 40% 대 3%…안철수·박원순 ‘단일화’ 가능할까?”. 9월 6일자: 3면.

45) 『경향신문』. (2011). “‘안풍’ 올라탄 박원순… 단일화 시너지 얼마나” 9월 6일자: 4면

46) 『헤럴드경제』. (2011). “지지율 40% 대 3%…안철수·박원순 ‘단일화’ 가능할까?”. 9월 6일자: 3면.

47) 『조선일보』. (2011). “[NEWS & VIEW] ‘9%(박원순 지지율) > 55%(안철수 지지율)’의 단일화”. 9월 7일자: A1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 미터 관계자는 “안 원장 지지층의 30~40%는 한나라당 유권자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60~70% 정도는 박 상임이사 지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리서치&리서치 관계자는 “안 원장을 지지했던 무당파의 상당수가 박 상임이사한테 쏠리는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며 “아주 안전하게 본다면 50% 정도는 박 상임이사 지지로 갈 것”이라고 했다.⁴⁸⁾

(2) 단일화 이후

안철수의 양보를 통한 단일화 이후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과 맞대결할 경우 ‘나경원 32.5%, 박원순 51.1%’로 나왔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나경원 33.5%, 박원순 49.8%’이었다.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에 실시한 6, 7일 이틀간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긴급 여론조사 결과 박 변호사는 다자 대결에서 19.8%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13.2%),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12.6%), 정운찬 전 국무총리(4.7%), 김한길 전 의원(2.3%) 순이었다.⁴⁹⁾ 언론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5%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단기간에 치솟았다고 평가했다.⁵⁰⁾

<조선일보-미디어리서치>의 7일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상임이사가 1위였다. 19.2%로 1위를 차지했고, 한 전 총리 18.4%, 나 최고위원 18.3%, 정 전 총리 6.2%,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4.1%로 뒤를 이었다.⁵¹⁾ 박 변호사는 나 최고위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51.1%를 얻어 32.5%의 나 최고위원을 앞섰다. 한편 한 전 총리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면 46.5%로 40.5%의 나 최고위원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향신문-디오피니언의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22.9%), 박 상임이사(16.6%), 한명숙 전 총리(14.9%) 등 1~3위가 오차범위 8.0%포인트 안에 모두 들었다. 이 조사에서도 박원순 후보는 세배 이상의 지지율 상승이 있었다.

안 원장, 여당 후보, 범야권 후보 등 3자 대결 시 46.0%로 나타난 안 원장 지지자의 59.8%가 ‘안·박 단일화’ 이후 대거 박 상임이사 지지로 바뀌었다. 나 최고위원은 안 원장 지지자의 27.5%만 흡수했다. 이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 대결할 경우 나 최고위원은 37.1%로 박 상임이사와의 양자 대결 때보다 9.6% 높아졌다.

6일 뉴스톡-동서리서치가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 조사에서 박원순 이사가 야

48) 『노컷뉴스』. (2011). “박원순, 안철수 지지층 적어도 50%는 가져올 것”. 9월 6일자.

49)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서울지역 500명, 그 외 지역 500명 등 모두 1000명을 대상으로 직접전화 방식으로 진행했고,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50) 『머니투데이』. (2011).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서 선두로 급상승”. 9월 8일자.

51) 조선일보 여론조사는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RDD(Random Digit Dialing · 임의번호 걸기) 방식을 이용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권 단일 후보로 출마해 한나라당 후보와 1대1일 양자 대결을 펼칠 경우, 박 변호사가 51.5%의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는 28.6%(모름, 무응답 19.9%)이었다.

추석이후인 9월 17일,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박원순 후보는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50.0% 대 31.7%로 우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대결에서도 59.8% 대 14.8%로 더 우세했다. 여야의 유력 후보들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박원순 상임이사가 야권의 단일 후보로 나올 경우 여권 후보들보다 모두 앞섰다. 박 이사는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과의 가상 대결에서 50.0% 대 31.7%로 우세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대결에서도 59.8% 대 14.8%로 우세했다.

종합해보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후보 양보 이후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율이 50% 안팎으로 수직 상승했다.⁵²⁾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 원장의 지지층 상당수가 박 변호사 쪽으로 옮겨간 것이 확인된다.⁵³⁾ 10월 여론조사에서도 역시 대선 후보 안철수 지지층의 70~80%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⁵⁴⁾

(3) 양보한 자의 지지율 상승 현상

대개 단일화를 실시하는 경우, 단일화에 합의한 사람의 지지는 떨어지고 대신 단일화에서 최종 승계를 받은 이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단일화를 통해 두 진영이 결합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이탈을 하는 지지자들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1+1=2가 아니라 1+1=2이하의 산술증가를 가져오는 것이 통례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철수-박원순의 사례에서는 양보한 박원순만이 아니라 안철수의 지지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9월 6일 뉴시스-모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안철수 원장이 42.4%, 박 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0.5%였다.⁵⁵⁾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양자대결을 펼칠 경우 안 원장은 43.2%, 박 전 대표는 40.6%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⁶⁾ 9월 7일, <조선일보>가 서울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2012년 대선 ‘박근혜-안철수’ 단독대결 조사에서 안 원장(41.5%)이 박 전 대표(40.7%)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높았다. 이후 약 한달 보름 뒤인 10월 16, 17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차기 대권후보 조사에서 안철수 교수는 44.2%를 얻었고 36.4%의 지지를 얻은 박근혜 전 대표를 7.8%p 차이로 앞섰다.

52) 『동아일보』. (2011). “[오늘 10·26 재보선] 정치지형 운명 걸린 ‘서울의 선택’”. 10월 26일자: A1면.

53) 『한겨레21』. (2011). “박원순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 9월 23일.

54) 『경향신문』. (2011). “모두 안철수만 보네” 10월 19일자: 1면.

55)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08명 대상 RDD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94포인트

56) 전국 19살 이상 남녀 700명 대상 가구전화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7%포인트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내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박 전 대표를 앞선 후보가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다. 4년간 30%대의 안정적인 지지율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 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또한 6일(CBS) 40.6% : 43.2%, 8일(MBC) 32.6 : 59.0이었다.

4) 최종 선거 결과 분석

(1) 당선 지지율

국면은 후보의 지지도 상승이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모아졌다. 하지만 단일화 뒤 10월 들어서서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보다 더 앞서는 여론조사가 빈번해지면서 다시 한 번 안철수 원장의 지원에 주목하게 되었다.⁵⁷⁾ 이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10월, 내일신문 · 리서치뷰의 여론조사에서는 나 후보(44.4%)와 박 후보(47.0%)의 지지도 격차가 박 전 대표 · 안 원장이 지원에 나설 경우 43.2%(나 후보) 대 53.8%(박 후보)로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철수 바람’의 파워가 ‘박근혜 바람’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셈이었다.

마침내 10월 24일 안철수 교수가 박원순 후보 캠프를 방문하였고, 그 뒤 한나라당은 당 자체조사 결과에서 23일까지 나경원이 2~3%p 우위였는데, 박원순 4%p 우위로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나경원 캠프의 한 핵심관계자는 “안철수 (2차 등장) 효과가 여론조사 지수상으로는 6%p인 셈”이라고 허탈해했다.⁵⁸⁾

10월 26일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민들로부터 받은 득표율은 총 53.4% 이었다. 5% 안팎의 지지율로 출발해 10배 이상의 지지율을 이끌어냈다. 거대 후원금과 대기업 사외이사 경력, 병역과 부인 강난희의 인테리어업체 ‘P&P디자인’의 일감 수주 등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지지율을 꺾는 역할도 했다. 하지만 안철수 원장이 몰아준 지지도는 대체적으로 유지가 되었다.

(2) 상생 리더십의 지속

57) 이때 나경원 의원은 부친의 사학재단 문제, 저축은행과의 유착 의혹, 나 후보 측이 가장 격하게 반응한 고가 ‘피부클리닉’ 논란, 남편의 기소청탁 의혹으로 지지율이 답보상태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인 김두우 홍보수석과 신재민 전 차관 비리 스캔들에 이어 내곡동 대통령 사저 문제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58) 『오마이뉴스』. (2011). “안철수 2차 효과 6%p인데…박근혜는 휘청”. 10월 27일자.

안철수 원장이 서울 시장 선거가 끝났으며 대권 후보에 나서지 않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지지도는 매우 높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차기 대선 후보로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서울시장 후보 양보라는 1보 후퇴를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향해 2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지적도 나왔다.⁵⁹⁾ 한 전문가는 “안철수 교수는 여론조사 1위임에도 통 크게 후보 자리를 내놓음으로써 더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됐다”⁶⁰⁾라고 했다. 서울 시장 선거가 끝나고 난 뒤의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점이 확인되었다. 10월 29일, 중앙일보, YTN-동아시아연구원(EAI)등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이 45.7%, 박 전 대표는 42.6%의 지지도를 보였다.⁶¹⁾ 또 10월 29일 한겨레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 결과, 안 원장은 48.0%, 박 전 대표는 45.9%의 지지도를 보였다.⁶²⁾

2012 대선에서 안철수 원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간 양자 대결이 벌어지면 안 원장이 박 전 대표를 7.2%포인트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안 원장의 지지율은 같은 조건으로 실시된 9월 조사(35.6%) 때보다 11.5%나 높았다.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 찾아들 것이라는 여론의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더했다.

선거가 끝난 뒤 안철수 원장의 기부행위는 더욱 그의 지지도를 높였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이들에게 덜어내는 현상이었다. 이는 역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심리를 형성시켰다.

매일경제신문·MBN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11월 18~19일 이틀 동안 국민 여론조사에서 가상 양자 대결 시 안 원장을 지지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47.1%, 박 전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39.9%였다. 매일경제·MBN·한길리서치 국민여론조사의 대선 양자 대결 설문에서 안 원장이 박 전 대표를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조사를 시행한 한길리서치의 소장은 “안 원장이 최근 자기회사 주식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점이 지지율 급상승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1월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11월 3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대선주자 다자대결에서 안 원장은 30.9%의 지지율을 얻어 박 전 대표(26.0%)보다 높았다. 안 원장의 지지율은 이전 주(24.8%)에 비해 6.1% 상승했고,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이전 주(26.6%)보다 0.6% 하락했다. 이 역시 안 원장이 주식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입장 발표한 15일 이후

59) 『헤럴드경제』. (2011). “3% 박원순 손 들어준 안철수, 정치 운명은?”. 9월 6일자.

60) 『아이뉴스』. (2011).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트위터 유명인사들 ‘안철수 결정 지지...더 큰 물에서 놀라’” 9월 6일자.

61)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

62) 전국 20살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부터 지지율이 급상승한 결과였다.

11월 19~20일, <오마이뉴스>와 (사)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조사⁶³⁾에 따르면 대선지지도에서 33.5%로 박근혜 전 대표(32.1%)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1대1 가상대결’에서는 ‘박근혜 39.3%, 안철수 52.5%’로 13.2%나 앞섰다. ‘박근혜·손학규’ 가상대결에서는 박근혜 50.5%, 손학규 31.0%로 박 전 대표가 19.5% 앞섰다. 박근혜 전 대표와 문재인 이사장이 맞대결할 경우에는 ‘박근혜 49.7%, 문재인 37.0%’로 박 전 대표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12.7% 앞섰다. 11월 15일, 뉴시스-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를 묻는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교수는 그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켰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33.7%로 공동 1위에 올랐다. 9월 뉴시스 조사와 비교하면 박 전 대표의 지지율 변화는 크게 없는 반면, 서울시장 선거와 재산 사회 환원으로 이어진 안 원장의 지지율은 무려 14.2% 포인트 수직 상승했다.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양자대결’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47.9%, 박근혜 전 대표가 42.0%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10월 27일 뉴시스 조사와 비교할 때 안 원장의 지지율은 7.1% 상승한 반면,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1.9% 포인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26일, MBN-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양자 대결이 벌어질 경우 안 원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7.3%, 박 전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44.0%였다.

11월 26일, 중앙일보와 YTN-동아시아연구원(EAI)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안 원장은 50.1%, 박 전 대표는 38.4%로 각각 조사됐다. 두 사람은 11.7% 차이를 보였다. 이전 정기 조사에서 안 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9월 42.8%, 지난 10월 47.7%를 기록하며 석달 째 꾸준히 상승세를 이었다. 반면에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같은 기간에 43.7%(9월), 42.6%(10월)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양자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5) 소결-상생리더십의 전제 조건 검토

앞선 논의에서는 행위자들이 판단자 앞에서 겸손과 양보의 행태를 보이면 지지도가 각자에게 상승하는 도식을 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앞선 제왕학적 논의에서는 주로 제왕들의 의사와 행위만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시민과 유권자들의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63) 선거여론조사에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처음 도입한 ‘리서치뷰’에 의뢰해 11월 19(토)~20일(일), 이틀 간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 전화번호 추출을 통한 ARS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의 KT(한국통신) 전화번호부 등재그룹과 비등재그룹의 비율은 각각 30.0%(300명)와 70.0%(700명)으로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1%p

(1) 잠재적 독선에 대한 기피

피대리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대리하지 않고 자신들을 스스로 대리하는 리더들의 독선적인 행동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 1인자 리더십을 보이는 정치후보들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는 행태를 낳는다. 이러한 가운데 안철수 원장의 검양 행태는 “주관 말을 튕기는 모습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도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내려졌고 바로 자신의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난 행태를 말한다.⁶⁴⁾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기존 정치권은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부정부패했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 많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에 반해 안 원장은 자기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공익에 이바지했고 나름대로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인 덕분에 각광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⁶⁵⁾

이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을 의미한다. 민주당의 독선에 저항하듯 한나라당을 선택했지만 다시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부당파로 돌아섰던 저간의 상황이 배태하고 있었다.

안철수 원장이 양보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기본적으로 기존정당과는 거리를 두어 정치권력의 토대에서 이탈하고 민주당 등 야권 정당의 지지도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보적 시민사회 세력을 기반으로 출마했기 때문에⁶⁶⁾에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안철수 원장의 양보를 받아낸 후 한 방송프로에 출연한 박원순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기존의 정쟁이나 얼룩진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새로운 생활정치,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의 정치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정당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시민후보로서의 길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⁶⁷⁾

(2) 일관된 행위

앞선 논의들에서는 특정한 시점에 행위를 시도하게 되면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공시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판단자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준거기준은 바로 그간의 일관된 행보이다. 만약 안철수 원장의 과거 행적들이 적합하지 않거나 박원순 후보의 행적들이 그러한 공통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지이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 언론은 두 사람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64) 『한겨레』. (2011). “[사설] 박원순-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의미와 과제”. 9월 6일자: 31면 3단.

65) 『연합뉴스』. (2011). “안철수-박원순 후보단일화 전문가 반응-2”. 9월 6일자.

66) 『동아일보』. (2011). “[오늘 10·26 재보선] 정치지형 운명 걸린 ‘서울의 선택’”. 10월 26일자: A1면.

67) 2011년 9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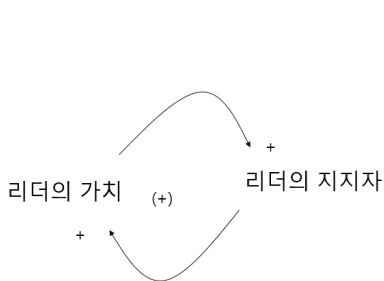
“안 원장은 안철수 연구소와 한국형 백신 프로그램 V3 무료 배포 등을 통해, 박 변호사는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을 통해 ‘잘난 개인’의 성공을 사회의 몫으로 돌렸다. 개인과 자기 가족만을 위한 입신양명이 아니라, ‘우리’라는 인식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깔려 있는 것이다.”⁶⁸⁾

안철수 원장이 지지를 받는 것은 그간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도 있지만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실현해와 정치적 대표자로서 가지는 역할과 부합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기존 정치에 대한 상징적 성토, 혹은 저항이라는 의견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성정치권에 대한 반감에 안 원장의 도덕성, 사회공헌성이 더해진 터라 지지율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러한 맥락에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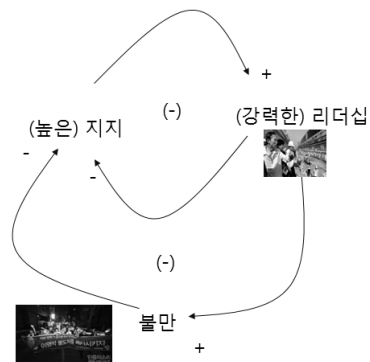
2. 시스템사고의 적용

1) 리더에 대한 인식

전제군주국을 배경으로 하는 동양사상에서는 군주의 독재는 전적으로 통제 없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전권을 행사하는 권력의 위험성은 본인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국민들에게 미쳤다. 공자와 노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이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이라는 사실이다. 당장에는 왕이나 제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지만, 그 복종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비록 1인자의 위치에 있지만 1인자로 독재적인 행태를 강하게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지자는 이탈하기 마련이다.



[그림 2] 리더와 지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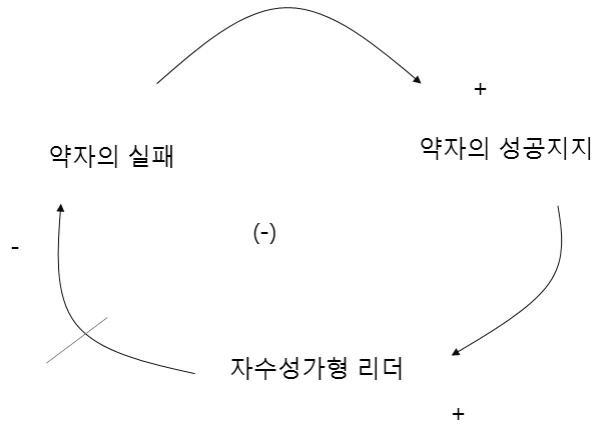


[그림 3] 강력한 리더십의 부작용⁷⁰⁾

68) 『한겨레21』. (2011). “안철수·박원순을 타고 온 시민정치의 꿈”. 9월 23일자.

69) 『머니투데이』. (2011). “‘비정치인’ 안철수 50% 지지율의 의미는?”. 11월 29일자.

어떠한 정치권력도 초기에는 지지 없이 출발하지는 않는다. 이는 군주국이나 현대의 내각도 마찬가지다.(그림2) 하지만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쉽게 그 강력한 지지는 독재나 독선적 행태로 이어지게 된다. 높은 지지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하지만 강력한 리더십은 지지자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만을 낳게 만든다. 이로써 높은 지지는 곧 낮아지게 된다.(그림3) 이러한 점은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다. 두 정부 모두 높은 지지를 보였지만, 그 높은 지지는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국정운영방식은 결국 지지기반을 이탈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강력한 지지기반과 이후 이탈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의 구분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메커니즘이었다.



[그림 4] 자수성가형 리더의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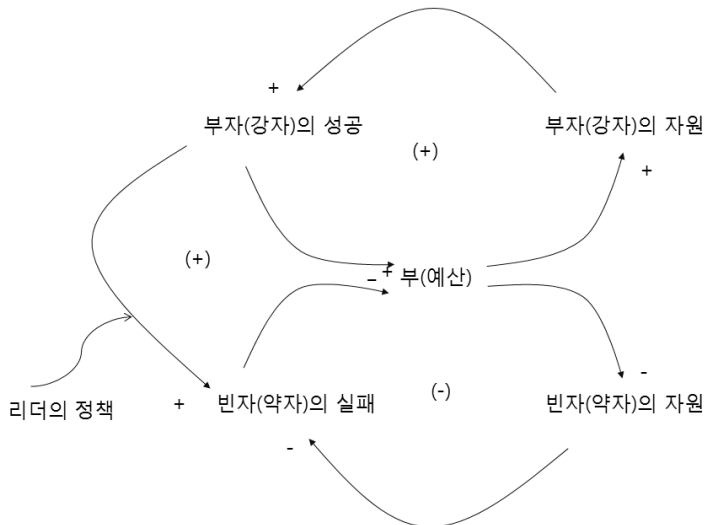
예컨대, 1%가 아닌 99%를 위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대중적으로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국민과 시민 대다수가 강자가 아니라 약자, 즉 부자가 아니라 빈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가 성공하는 모델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리더 가운데에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혼자 스스로 일어서서 성공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에게 가난 마케팅을 구사하도록 만든다. 가난 마케팅이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약자의 성공(강자)에 대한 선호 지지 메커니즘은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작용해왔

70) 이 도식에 대한 근거는 김동환, 『시스템사고』, 선학사, 2009, pp203-204 참조. 본래 이런 변수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높음’과 ‘강력’은 강조를 위한 비교상의 편의를 위한 임의개념임.

다. 국민의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직은 이 패러다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잠정 추론할 수 있다. 다만 그 패러다임의 이동은 있다고 볼수 있다. 이는 언젠든지 앞으로 티핑 포인트를 맞을 수 있겠다.

구성원의 대다수가 약자이자 빈민이라고 할 때 대다수가 바라는 것은 일단 약자와 빈민을 위한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강자출신보다는 약자 출신을 선호한다. 이러한 점을 정당들도 인식하기 때문에 자수성가형 리더후보를 모색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관행화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구현하지 않고 강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지지기반은 이탈을 할 수밖에 없다. 전적으로 약자를 위한 정책만을 추구한다면 이 또한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은 참여정부에서 적절하게 추구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포지션은 한미FTA 추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부세 인하나 법인세 감면, 선택과 집중 등 다양한 형태의 강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거나 일부 기득권자들을 위한 노골적인 예산분배 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더욱 심한 편중성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통과 개방이 아니라 단결과 통제의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주도하면서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일관되게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은 다른 방식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림 5] 최고 리더의 역할과 부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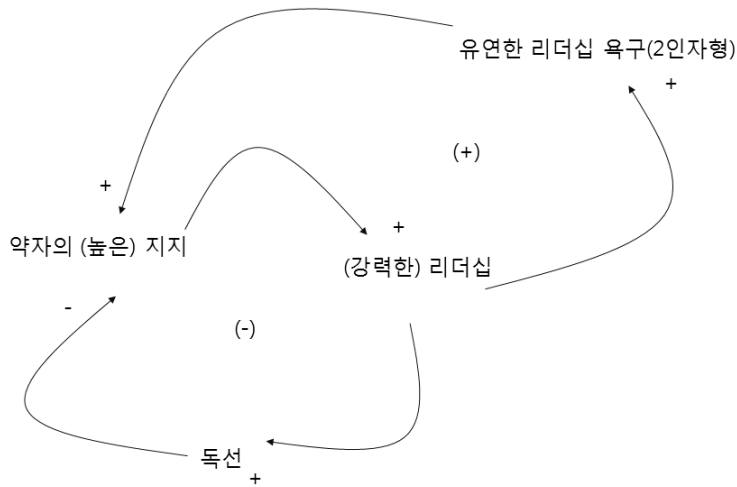
2) 2인자형 1인자 리더십과 시스템사고

강력한 지지를 받은 리더들은 그 강력한 지지에 맞추어 자신들의 행태들을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는 경로의존성의 맥락에서 쉽게 인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최종 리더가 되기 전과 된 후의 리더십 스타일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1)창업단계-1인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1인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의 지지와 입지가 1인자보다 더 단단하게 구축되는 리더십이다. 또한 자신이 약자의 대리자임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대중정치 특징이라는 점을 충분히 내재화한 리더십 스타일을 보이는 단계이다. 물론 이때 모두 2인자이지만 1인자를 배태하고 있다.

2)수성단계-창업의 단계를 통해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자가 되어서도 항상 2인자 리더십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영역에서 많은 경우 실패하게 된다. 브라질의 룰라의 경우 철저하게 2인자형 1인자 리더십을 집권 내내 80%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게 된다.

3)창발단계-한 영역에서 최고의 리더가 되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높은 지지를 보인다. 그렇다면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도 다른 영역을 더욱 생(生)하게 만드는 리더십의 단계이다. 이른바 상생(相生)의 리더십 단계이다. 안철수도 자신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구가하고 다른 이들을 생(生)하게 만들고 자신도 더욱 생하게 만드는 전략이 수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보겠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영역을 쉽게 버리고 다른 영역으로 쉽게 영합하지 않을 때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서울시장선거후의 안철수 행태는 여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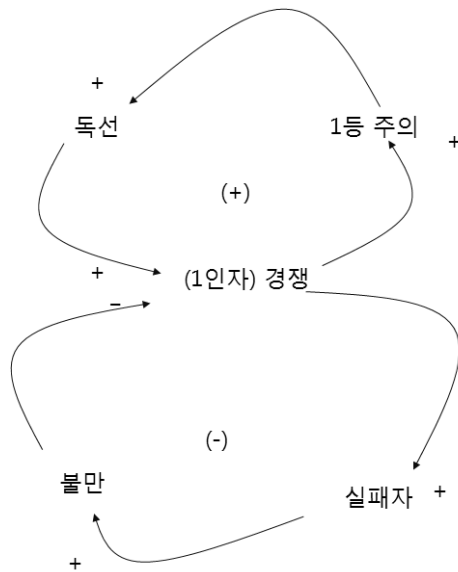


[그림 6] 2인자형 1인자 리더십의 피드백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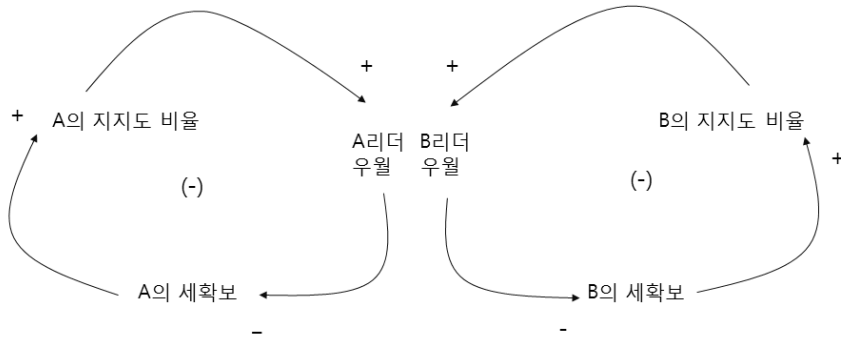
3) 서울시장 선거와 상생의 시스템 사고

지위에 대한 상승은 경쟁을 경쟁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도록 한다. 인간은 제한적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지위 상승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한 지위에 대한 상승이 혼자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피대리자의 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경쟁 가운데에서도 1등을 위한 경쟁이라면 1등은 우월한 지위를 확보해준다. 이는 자칫 독선이나 독재적 행태를 낳게 된다.(그림7) 또한 실패자를 양산하고 이에 따른 불만을 증가시킨다. 경쟁은 격화되고 독선은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같은 점은 피대리자의 이반을 낳을 수밖에 없다.

두 행위자가 경쟁을 벌일 경우, 두 사람은 세 확보를 위해 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용자원을 투여하여 우월적 지위를 누리려 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의 격화는 두 사람의 가용자원의 낭비만을 내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쟁의 격화는 이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지지자들의 민심 이반을 낳게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등주의 경쟁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독선적인 리더십의 행태로 쉽게 전이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적 무관심이나 냉소주의를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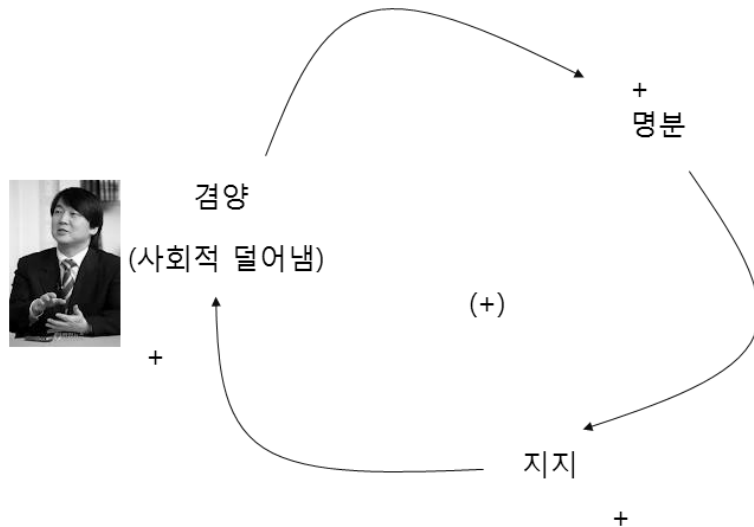


[그림 7] 1인자 경쟁의 부작용



[그림 8] 경쟁의 격화

이때 일정하게 필요한 것이 겸양의 리더십이다. 이는 선택자들의 인지지도에 연관된다. 즉 사람의 인지지도와 실제의 세계가 맞물리는 지점이다.⁷¹⁾ 겸양의 리더십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나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덜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강자이면서도 강자가 아닌 위치적 명분을 확보하게 되고 독선적 행태에 대한 예견을 불식시킨다. 이는 판단자들에게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지지는 다시 겸양의 행태를 촉진한다. 이는 앞서서 동양 사상과 고전들에게서 사상가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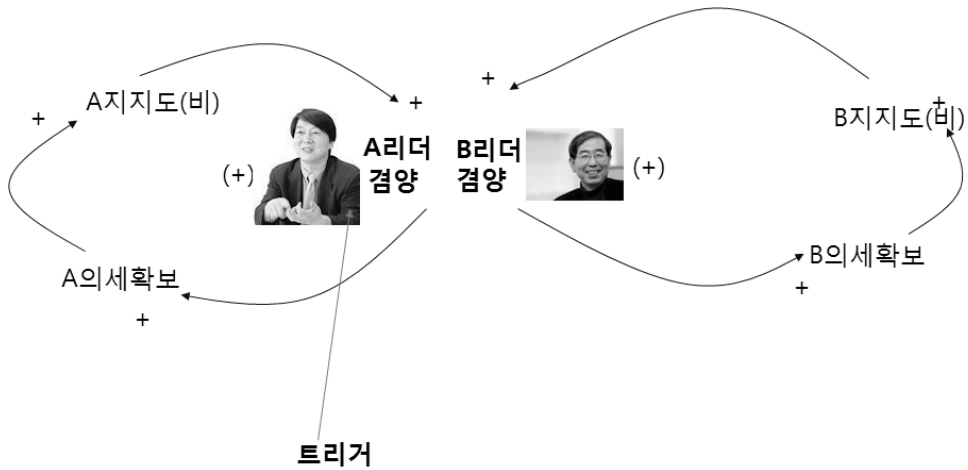
[그림 9] 겸양의 인지지도(안철수의 경우)

71) 이런 인지지도와 현실의 관계성은 김동환. (2004). 『시스템사고』. 선학사. 230-237 참조.

안철수가 박원순에게 양보한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안철수는 압도적인 지지도를 보였지만, 박원순은 판단자들에게 지지도가 낮았다. 하지만 그 지지도가 낮은 정도는 비호감이나 부정적인 점 때문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박원순 단일후보로 내세운 것은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점을 알려준 것도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상당한 지지도를 얻은 안철수나 박원순이나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만한 자질과 활동이력의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안철수가 더 미디어 등을 통해 알려졌고, 이러한 지지도를 박원순에게 양보했다. 하지만 그 양보한 저량은 그대로 박원순에게 이동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피드백 루프를 통해 안철수의 지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림10)

일반적인 단일화에서는 서로 경쟁을 추구한다. 또한 조건을 일정하게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한쪽으로 표가 집결이 되는가 하면 일부 피단일 선출 후보의 지지자들의 경우 이탈하여 새단일 후보에게 이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피단일 선출 후보에 대한 지지는 낮아진다. 하지만 안철수-박원순 단일합의는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더 큰 지지를 안겨주었다. 특히 안철수는 서울 시장에 출마하지 않고 양보하는 바람에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감으로 지지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일정한 조건을 담보로 단일화하는 경우, 상생의 효과가 더 떨어진다. 피대리자가 아니라 대리자들을 위한 단일화라는 점을 강화하는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철수는 완전히 조건 없이 단일화에 합의하고 서울시장 후보에서 물러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생의 메커니즘에서 1차적으로 트리거 역할을 해야 하는 이는 강자라는 점이다. 강자가 약자에게 양보를 하니 약자의 처지에서는 그의 통 큰 양보와 행위에 대해 찬사와 지지 그리고 협조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시 이 양자가 만들어내는 메커니즘과 피대리자의 지지도를 이끌어내도록 한다. 또한 아무에게나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이력 등을 간직하고 있는 행위자이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행위자의 콘텐츠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나거나 인식을 주게 되면 지지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⁷²⁾

72) 이러한 점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했다. 박원순 후보가 부정의 대기업에서 기부금을 받아 나눔을 실천했다는 의혹이나 학력위조, 병역기피, 고가의 월세의혹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네거티브전략은 그에 상응하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의혹제기를 증가시켰다. 결국 나경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 네거티브 여론은 나경원 후보가 강자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고, 지지는 이탈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안철수가 다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면서 선거의 당락은 결정된다.



[그림 10] 상생의 모델과 트리거

IV. 결 론: 안철수 현상의 한계와 과제

앞서 거창하게 동양사상과 시스템사고를 언급한 것은 한국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침잠해있는 문화적 밈(Meme)인 겸양의 시스템사고를 실제 사례를 통해 구현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러한 고전사상대로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독선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의 기본 존재 조건과 원리를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선순환의 영역을 구축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다. 특히 상생에서 중요한 피드백루프는 바로 강자의 겸양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많이 담론화 되고 있는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통 경쟁과 자원배분이 통상, 경쟁의 격화와 자원배분의 편향성 심화로 나타나 개인적으로나 사회 국가적으로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점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룬 사례는 서울시장선거라는 단일한 사안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빅 이슈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한 정치공학과 정치적 배경 고리가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항상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석하거나 논한 내용이 이런 측면들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만, 2012년 대선판도가 서울시장 선출이나 안철수 지지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예측측면에서

연계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또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발생한 점들은 배제했다.

서울시장 선거이후 안철수의 지지도가 더 높아졌고, 마침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도 조사에게 이기는 결과까지 낳았는데, 이는 안철수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박근혜의 경우, 4년 동안 대세론을 구축해왔기 때문에 강자하는 입지가 강하고, 또한 그 강자를 계속 수성하기 위한 행보로 임혀졌다. 이러한 측면은 자신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행동하는 상대적 약자 안철수의 지지세를 더욱 증대시켜 마침내 안철수를 박근혜보다 강자의 반열에 올라놓게 되는 메커니즘으로 증폭되었다.⁷³⁾ 하지만 여기에 안철수의 강자화가 갖는 피드백 루프의 특성이자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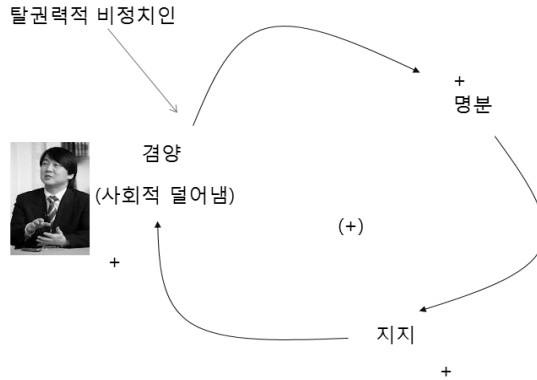
한 여론조사에서 안 교수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무려 50.3%나 됐다.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28.0%에 불과했다.⁷⁴⁾ 이는 정치권에 막상 안철수 원장이 들어가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역이 다른 문제이거나 상징적 저항의 관점이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모든 행위들이 자신의 정치욕심을 채우기 위한 의도적 전략이라고 확정되기 때문에 일선 정치에 안철수 원장이 나설 경우 실제 지지도는 상당한 고전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철수 현상’은 자신의 축적을 덜어주고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려했기 때문에 작동하는 메커니즘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총선을 넘어서는 대권은 너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은 대리자-피대리자-판단지시자 구도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비단 안철수 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생의 메커니즘의 수혜를 입은 2010년 9월 7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원순 후보는 ‘안 원장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양보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이해타산을 저울질하는 분이었다면 이런 결심이 어려웠다고 본다.”, “정치 공학적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한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의 지지에도 좋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상생(相生)의 모델은 상살(相殺)의 모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생의 모델에 필요한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한 함의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안철수가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국가 통치리

73)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안 원장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박 상임이사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성심을 다해 지원한다면 단일화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면 안철수가 그 뒤에 한 기부나 대선출마 거부에 대한 언급들은 신뢰성을 갖기 힘들었을 것이다. -안철수 지지율 박원순으로 옮겨갈까, <연합뉴스>, 2011년 9월 6일자

74) 중앙일보와 YTN-동아시아연구원(EAI)이 10월 29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더로써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낮을 것이다. 다만, 사회일반 유명인으로는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실제로 이는 2012년 들어서서 정치지도자로 지지도는 낮아지는 수렴 현상을 보였다. 이는 사익을 버리는 일관된 행태의 리더와는 거리가 멀어보였기 때문이다. 겸양보다는 독식의 맹아로 읽히기도 했던 것이다.



[그림 11] 안철수 겸양 시스템 사고의 한계

【참고문헌】

- 김동환. (2001. 5). 정책설득의 다이내믹스: 명분과 실리의 인과지도, *Dynamics of Policy Persuasion: Cause vs. Outcome*,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제2권 제1호: 51-67.
- 김동환. (2004). 『시스템 사고』. 선학사.
- 김동환. (2009. 4). “음양론에 입각한 시스템 사고의 접근 Yin Yan Approach to Systems Thinking”.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제10권 제1호: 97-107.
- 김동환. (2003). “Oriental Way of Systems Thinking”.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제4권 제1호: 55-68.
- 김동환 · 김현식. (2004. 11). “한국 사회 변화의 티핑 포인트와 시스템 사고: 약자의 피드백 루프와 티핑 포인트들의 인과성 검토, *Systems Thinking on the Change of Koean Society into Square Culture*”.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제5권 제2호: 5-31.
- 김동환 · 김현식. (2005). 『촛불@광장 사회의 메커니즘: 티핑 포인트, 약자의 선순환, 트리거』. 북코리아.
- 김상욱. (2008. 5). “동양의 시각에서 본 학습조직의 재해석(Reinterpretation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from the Oriental Perspectives)”,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제9권 제1호: 33-56.
- 김용욱. (1998). 『노자(길과 얼음)』. 통나무
- 김현식. (2006). 『신돈 미천하니 거리낄 것이 없네』. 창해.
- 김현식. (2009). 『복종하며 지배하라』. 연암사.
- 야마모토 시찌헤이(山本七平). (1984). 『제왕학』, 편집부 옮김. 매일경제신문사. 5-10
- Donella H. Meadows. (2008). *Thinking in Systems: A Primer*, Chelsea Green Publishing.
- John Sterman. (2000). *Business Dynamics: Systems Thinking and Modeling for a Complex World*. McGraw-Hill/Irwin.